

장성군-CJ푸드빌 맞손... '지역 식재료 비건음식 열풍' 이끈다

N서울타워서 지역상생 협력 갈라디너 행사서 '각광'

장성군, 사찰 비건 음식 특화로 남도음식 진흥 본격화

장성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번지고 있는 비건(vegan·채식) 음식 열풍을 주도하기 위해 CJ푸드빌과 손잡고 사찰음식을 특화한 남도음식 진흥에 나서고 있다.

11월29일 장성군에 따르면 전남 남산 엔(N) 서울타워 전망대 3층 한국 레스토랑에서 씨제이(CJ)푸드빌과 함께 '지역상생 협력 갈라디너' 행사를 통해 장성의 우수 식재료를 만든 비건 음식을 선보여 각광을 받았다.

갈라디너는 잘 차려진 저녁 정찬을 뜻한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김한중 장성군수, 김찬호 CJ푸드빌 대표이사, 외식산업·엔론 관계자와 주한유럽연합대사, 주한스위스 대사 등 내외빈 50여명이 함께했다.

장성군은 행사 주제 '월동(越冬) 겨울맞이'에

맞춰 장성의 청정 환경에서 재배한 사과, 토종 감, 복분자, 토란, 들깨, 버섯 등 40여가지 식재료를 만든 6개 코스 요리 메뉴를 선보였다.

요리는 사찰음식의 명장인 백양사 전진암 정관스님이 맡았다.

이번 행사는 장성군과 CJ푸드빌이 지난 5월 체결한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CJ푸드빌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자체 누리통신망(SNS)을 활용해 장성산 식재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과, 새싹삼 등 장성 농특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CJ푸드빌은 이미 닭갈국수에 장성 새싹삼을 사용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장성사과즙 제품

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찬호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외식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며 장성군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CJ푸드빌은 이번 서울 갈라디너 행사를 통해 고품질의 장성 식재료 홍보는 물론, 사찰음식으로 대표되는 장성군 비건 음식의 관심을 높이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협력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면 기후 변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대기업 간 상생 우수사례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군과 CJ푸드빌의 상생 프로젝트가 장성을 넘어 남도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업무협약과 5대 맛거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미식도시 장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장성군이 11월28일 N서울타워에서 개최한 갈라디너 행사에 참석한 김찬호 CJ푸드빌 대표이사(왼쪽 첫 번째), 김영록 전남지사(“쪽 두 번째), 정관스님(“세 번째), 김한중 장성군수(“네 번째)가 '행사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재)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 기획전시 '정원사의 진술'

(재)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이병노)은 12월 7일부터 담빛예술창고에서 '정원사의 진술' 전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영국의 시인 마크 해머(Marc Hamer)의 『두더지 잡기』(2021)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됐으며, 안정적으로 조성된 정원과 이를 위해 행하는 정원사, 이것을 헤치는 두더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김유정, 손몽주, 양정욱 세 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갈 예정이다. 정주하는 삶에 대한 현대인의 안일함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와 오브제를 활용한 작품과, 특히 대형 설치 작품들이 주를 이뤄 특색있는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담빛예술창고는 담양 관방제림 끝자락에 위치한 옛 양곡 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시와 공연, 차와 도시를 한 자리에 즐길 수 있어 방문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방문객이 담양의 정취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여 작품 안에 내재된 뜻을 사유하는 향유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12월 7일 오후 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단체방문 시 사전예약을 통한 전문 도슨트의 해설도 가능하다.

다양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damyangcf.or.kr>)를 확인하거나 예술진흥팀(070-7701-6929)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기자

방치된 나주 폐병원, 공공형 종합병원으로 태어난다

나주 영산포제일병원 '공공형 종합병원' 리모델링...나주시-세화의료재단, 응급실 갖춘 준종합병원 설립



시-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 업무협약
일시: 2022.12.29(목) / 장소: 나주시청 이화실

폐원해 방치된 옛 영산포 제일병원이 내년 상반기에 공공형 종합병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나주시는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과 추진한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 사업 협의를 마치고 오는 12월 중순부터 옛 영산포 제일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나주 이장동에 위치한 옛 영산포 제일병원은 지난 2019년 11월 폐업 이후 빈 건물로 방치돼 왔었다.

이 때문에 그간 해당 병원을 이용해 온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불명하며 고구마, 가래떡 굽기' 체험 중

내년 2월 말까지 주말·공휴일 행사...23일부터는 겨울놀이터도 개장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겨울철을 맞이해 지난 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불명하며 고구마, 가래떡 굽기' 행사가 열린다.

다양한 체험행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불명타입 보이'는 라디오다. 방문객들은 고구마와 가래떡을 구워 먹으면서 따뜻한 불에 몸을 녹이고, DJ가 전하는 노래와 사연을 들으며 힐

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불명체험은 인기가 많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기다리는 동안 제기차기나 팽이치기 등의 전통놀이를 즐기거나 캠핑용 전기 난로가 비치된 가족용 난방텐트에서 캠핑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가능하다.

오는 12월 23일부터는 어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겨울놀이터' 체험시설도 개장된다.

인공 눈으로 만든 눈썰매장과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얼음 미끄럼틀, 얼음판 위에서 컬링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준비돼 있다.

섬진강기차마을은 매년 겨울 행사로 '겨울놀이터'를 정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매해마다 썰매타기, 얼음 미끄럼틀 등 다양한 겨울 체험을 통해 가족들이 추억을 이겨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명하며 고구마, 가래떡 굽기' 체험이나

'겨울놀이터' 체험시설은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기차마을 중앙광장 앞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을 구성하여 시즌 분위기를 느껴볼 수도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 기간인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어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선물도 제공될 예정이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관계자는 "울겨울 가족과 함께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언제나 기대되고 설레는 여행지로서 섬진강기차마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